

고유가 장기화 “실질대책 없다”

상공회의소, 국내기업 대응책 주먹구구식 ... 중동·중국 변수 부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 대부분이 에너지절약 이외에 특별한 대책 없이 국제유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22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의 유가전망과 대응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59.1%가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97.7%가 고유가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소기업은 27.1%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고유가 대책 중에는 에너지절약 강화 등의 피상적인 대책이 83.3%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비효율 설비 교체(3.4%), 사용 에너지원 전환(2.2%) 등 근본적인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는 곳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는 53.6%가 국제유가 변동 예측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투자금액 부담(14.5%), 사내인식 부족(13.2%), 정부의 인센티브 부족(12.3%), 인력부족(5.0%) 등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응답기업 중 62.3%는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수준 유지 또는 하락을 전망한 응답은 23.2%와 14.5%에 그쳤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수준에 대해서는 49.6%가 60-65달러(WTI 기준)를 예상했으며 57-60달러 37.2%, 65-70달러 8.8%, 70달러 이상 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40.4%가 “중동지역 테러위험 증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등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급증(28.2%) ▷미국 원유 재고량 감소(14.4%) ▷산유국 정정불안(11.2%) ▷국제투기자본의 석유 시장 유입(5.3%) 등을 들었다.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 중 92.0%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 1년 안에 해소될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으로 내다보았으며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화학저널 2004/11/05>